

〈차사본풀이〉 읽기

: 의례, 서사, 민속지식의 합주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삶과 죽음’의 길항 관계에 대한 인식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죽음이라는, 저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생물에게 ‘삶에서 죽음으로의’ 존재론적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간관계 및 일처리 방식은 달라지게 마련인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현재적 삶을 붙들고자 하는 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신화가 있다. 바로 <시왕맛이>, <귀양풀이> 등 제주 무속에서 구송되는 <차사본풀이>이다. <차사본풀이>는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한다. ‘죽음에서 삶으로’의 존재론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삶에서 죽음으로’라는 표현과 ‘죽음에서 삶으로’라는 표현이 무척 대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론적 변화가 가해진 삶’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삶과 죽음은 반드시 대립적이지만은 않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은 길항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삶은 죽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더 좋은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죽음은 삶을 더 잘 이해하고 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차사본풀이>는 삶과 죽음의 길항관계를 극복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이들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단서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윤리적 언행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윤리적 언행을 대부분 삶과 연계시켜 얘기하지만, <차사본풀이>와 같은 신화에서는 이를 죽음과 직결시켜 얘기하고 있음을 본다. 윤리를 매개로 하여 삶과 죽음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심오한 신화철학(神話哲學)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차사본풀이>의 의례적 전승과 서사의 형성을 설명한 후, 이 신화의 가장 주요 캐릭터인 강임을 통해 죽음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차사본풀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장자풀이>, <집가제국> 등 동계(同系) 자료들과의 대비¹⁾ 및 <김치설화>, <신무염불>, <혜심곡> 등 <차사본풀이>와의 영향관계에 있는 자료들의 대비²⁾에 집중되어 있

1) 최원오(1997),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223-246면; 김형근·김헌선(2008),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집가제국>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39-271면; 권태효·김운희(2010),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9-243면.

2)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 : 설화 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8집, 국문학연구회, 1-175면; 강진옥(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187-225면; 강진옥(2010), “김치(金緻)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34면; 강진옥(2010),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

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설명 방식은 <차사본풀이>를 보다 포괄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차사본풀이>의 제의적 전승과 서사의 형성 맥락

1) <차사본풀이>의 제의적 전승 맥락: 시왕맞이와 귀양풀이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 <귀양풀이> 등에서 심방이 제사를 향해 앉아서 장구를 치며 구송한다. 차사는 저승차사를 말하고, 본풀이는 ‘근본’을 풀이한다는 뜻이니, ‘차사본풀이’는 곧 저승차사의 근본을 풀이한 신화임을 알 수 있다. <시왕맞이>는 저승에서 망자의 영혼을 심판한다는 10명의 왕을 제장(祭場: 굿하는 곳)으로 청하여 맞이한다는 것이고, <귀양풀이>는 장례 때 따르는 살기(殺氣)를 풀어낸다는 것이다. <시왕맞이>, <귀양풀이> 등은 모두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제의인 것이다. 아래에 <시왕맞이>, <귀양풀이>의 제차(祭次)가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되는지를 제시한다.

| 시왕맞이 구성제차 | 내용 | 귀양풀이 구성제차 | 내용 |
|-----------|---|-----------|--|
| 초감제 | 굿의 시작을 알리는 제차 | 말미 | 본격적 의례에 앞서 굿을 하는 전반적 상황을 말로 풀어내는 제차 |
| 방광침·추물공연 | 방광침: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게 해달라고 방광(징)을 치며 기원하는 제차 | 공선가선 | 굿하는 연유를 말하기 시작하는 제차 |
| | 추물공연: 청한 신들에게 제물을 드시도록 권하며 축원하는 제차 | 날과국섬김 |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하는 제차 |
| 차사본풀이 | ‘말미-공선가선-날과국섬김-연유담음-신메움-들어가는 말미-본풀이-비넘-주잔넘김-산받아 분부(영계울림)-제차넘김’의 과정에서 <차사본풀이>가 구송됨. *연유담음에서 <혜심곡>(回心曲)의 내용이 사용되기도 함 | 연유담음 | 굿하는 사정을 고하는 제차 |
| | | 신메움 | 모실 신들을 다시 일일이 거명하며 의례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제차 |
| | | 신청귀 | 젯드리에 따라 신명을 차례로 언급하는 제차 |
| 시왕도올림·석살림 | 시왕도올림(또는 도올림=役價바침): 옥황상제부터 시왕까지 상위의 주요 신을 본래의 자리(집안의 당kül)로 돌려보내는 제차 석살림: 신에게 음식을 대접한 후 가무로써 신을 즐겁게 하며 기원하는 | 추물공연 | 청한 신들에게 제물을 드시도록 권하며 축원하는 제차 |
| | | 사남(열려맞음) | 영혼을 좋은 저승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제차 |

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327-361면; 강진옥(2012), “차사본풀이 연구-강임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5권, 한국고전연구학회, 5-36면; 강진옥(2014), “저승여행담을 통해 본 제주도 무가 <혜심곡>과 <차사본풀이>의 관계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9-71면; 강진옥(2015), “신무염불에 나타난 강임차사의 인물형상과 그 형성배경”,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학회, 209-237면; 유형동(2015), “<짐가제국> 무가의 서사 지향과 기능 - <차사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아고대학』 제3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89-112면.

| | | | |
|-------------------|--|---------------|--|
| | 제차 | | |
| 액맥이 | 시왕맞이의 부속 제차.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를 액운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제차. *액맥이 제차의 구성: 날과국섬김-연유닭음-사만이본풀이-액막음-산받아 분부-비념 *〈사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 사만이가 骸骨을 십겨 財福을 얻고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내용 | 산받아 분부 (영계올림) | 산받음의 결과를 영혼의 말로써 가족에 전하는 제차. 심방은 가족들 각자에게 영혼을 대신하여 말을 하는데, 이때 울음을 섞어가면서 말명함. |
| | | 차사본풀이 | 인간차사 강입이 저승차사 강입으로 좌정하는 내용 |
| 나카도전침·삼천군병질침 | 나카도전침: 나카시리라고 하는 시루떡을 강입차사에게 바치는 제차. 이어 〈지장본풀이〉를 구송 *〈지장본풀이〉: 지장아기씨가 심방이 되어 시왕맞이굿을 하고 죽어서 새로 환생한 후 사람들에게 온갖 홍험을 주어 제물을 얻어먹음. 삼천군병질침: 제칭 안으로 청하여 모신 여러 신의 뒤를 따르는 하위신과 굿판을 기웃거리는 雜神을 위한 제차 | 웃가지사름 | 영혼이 생전에 쓰던 물건을 꺼내놓고 하나씩 문전에 던져 놓고 신칼점을 하여 영혼이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제차. 영혼이 가져가겠다고 한 물건은 바깥으로 내던져두었다가 불태움. |
| | | 도진 | 신과 영혼을 돌려보내는 제차 |
| 차사영맞이 (질침, 차사본풀이) | 질침: 마당에 멍석으로 길을 만들고 그 위에 댓가지로 문을 세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치우고 닦아 영혼으로 하여금 시왕 앞으로 편안히 가게 해달라고 하는 제차 *차사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과정을 재현함. *〈차사본풀이〉: 강입차사를 위해 구송됨. | | |
| 메어들어 석살림 | 마당에서 굿을 하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차 | | |

대체적으로 <시왕맞이>는 망자의 3년상을 전후하여 망자가 ‘좋은 저승’에 가기를 기원하기 위해, 또는 중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행된다. 그리고 <시왕맞이>는 큰굿의 한 제차로 연행되거나 단독으로 연행되는데, 어느 경우에도 <차사본풀이>가 2번 구송된다. 즉 굿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초감제-방광침-추물공연’ 다음 제차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차사영맞이 제차에서 구송된다. 저승의 시왕은 사람의 죽음을 주관하고 망자의 재판을 관장한다고 믿어지기에 이 저승신들을 제장에 주빈으로 청하여 위하는 것이다. 이때 망자의 영혼을 시왕 전(前)에 데

려가는 역할을 하는 저승차사뿐만 아니라, 시왕을 호위하고 온 삼천 군병들도 함께 위하게 된다. 위의 표에서 나까도전침은 저승차사 강임을 위해, 삼천군병질침은 삼천 군병들을 위한 제차인 것이다.

여기서 <시왕맞이>를 하는 목적이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3년상 전후의 망자의 영혼이 '좋은 저승'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시왕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다르게 마련이다. 시왕맞이를 연행하는 목적이 전자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왕에게 중환자의 죽음을 유예해 달라고 기원하는 게 초점이 된다. 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중환자가 죽어서 시왕전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미리 선처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게 된다. 불교에서의 예수재(豫修齋)에서 신도들이 기원하는 바와 유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왕맞이를 연행하는 목적이 후자에 있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의례 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12지옥과 그곳을 관장하며 망자의 영혼을 재판한다는 시왕들에 대한 정보이다.

| 시왕 | 직무 및 주관 지옥 | 지옥 이미지 |
|----------------------|--|---|
| 제일 진광대왕 (第一 秦廣大王) | 죽은 지 첫째 칠일[7일]에 심판을 맡은 왕. 도산지옥(刀山地獄) |  |
| 제이 초강대왕 (第二 初江大王) | 죽은 지 둘째 칠일[14일]에 심판을 맡은 왕. 확탕지옥(鑊湯地獄) |  |
| 제삼 송제대왕 (第三 宋帝大王) | 죽은 지 셋째 칠일[21일]에 심판을 맡은 왕. 한빙지옥(寒水地獄) |  |
| 제사 오관대왕 (第四 五官大王) | 죽은 지 넷째 칠일[28일]에 심판을 맡은 왕. 검수지옥(劍樹地獄) |  |
| 제오 염라대왕 (第五 閻羅大王) | 죽은 지 다섯째 칠일[35일]에 심판을 맡은 왕. 발설지옥(拔舌地獄) | |

| | | | |
|--------------------------|--|--|---|
| | | |  |
| 제육 변성대왕 (第六 變成大王) | 죽은 지 여섯째 칠일[42일]에 심판을 맡은 왕. 독사지옥(毒蛇地獄) | |  |
| 제칠 태산대왕 (第七 泰山大王) | 죽은 지 일곱째 칠일(49일)에 심판을 맡은 왕. 거해지옥(鋸解地獄) | 업보에 따라 육도(六途: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윤회가 결정됨 |  |
| 제팔 평등대왕 (第八 平等大王) | 죽은 지 100일째에 심판을 맡은 왕. 철상지옥(鐵床地獄) | 재심 |  |
| 제구 도시대왕 (第九 都市大王) | 죽은 지 1년째에 심판을 맡은 왕. 풍도지옥(風途地獄) | 재심 |  |
| 제십 오도전륜대왕 (第十 五途轉輪大王) | 죽은 지 삼 년째에 심판을 맡은 왕. 암흑지옥(黑暗地獄) | 재심 |  |

이상의 표에 의하면 망자의 영혼은 3년째에 제십 오도전륜대왕에게 재심을 받는다. 이후에는 재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재판이다. 그래서 망자의 3년상 전후에 진행되는 시왕맞이는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시왕맞이만큼 중요한 의례적 성격을 갖는다. 첫 번째로 <차사본풀이>를 구송하기 전의 연유담음 제차에서 <헤심곡>을 구송하기도 하는 것

은 이와 관련이 깊다.³⁾ <혜심곡>은 저승차사가 망자의 영혼을 붙잡아 시왕 전에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망자의 영혼을 재판하는 것은 시왕이지만, 그곳까지 붙잡아가는 것은 저승차사이므로, 이 제차에서 특별히 저승차사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승차사 강임의 내력담인 <차사본풀이>가 구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저승차사 강임이라는 신격의 유래가 설명되어야 이후에 펼쳐질 망자의 저승 여행 및 시왕 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왕맛이를 연행할 때 망자의 영혼을 제장까지 청하였다가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어 재심을 받게 할 때, 저승차사 강임이 망자의 영혼을 붙잡아가게 되므로, 이 지점에서 질침이라는 제차가 연행되고 <차사본풀이>가 구송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는 저승차사 강임이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모시고 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라는 의례적 성격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 저승차사 강임의 내력이 아니라, 임무에 더 초점을 두어 의례가 연행되는 것이다. <시왕맛이>에 비해 <귀양풀이>는 장례를 치른 날 저녁에 연행되는 의례이다. 망자의 영혼이 저승 시왕 전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시왕을 의례가 연행되는 곳에 청하지 않고, 다만 망자의 영혼을 붙잡아갈 저승차사 강임만 청한다. 따라서 이 의례에서 심방이 <차사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은 저승차사 강임의 근원을 설명함과 동시에 망자의 영혼을 저승 시왕 전에까지 잘 모셔가 달라고 기원하는 것을 아우른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사본풀이>는 시왕맛이, 귀양풀이 등의 의례와 긴밀하게 결속되어 전승되고 있는 신화이다. 그리고 <차사본풀이>는 이러한 의례 연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신화이기도 하다. 신화 속에 망자 의례와 관련된 저승차사의 근원과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차사본풀이>에는 강임이 저승 염라대왕을 포박하러 가는 길에 일문전 할아버지가 강임에게 78개나 되는 저승길을 소개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시왕맛이, 귀양풀이 등 죽음의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길은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게 될 저승차사 강임에게 필수적으로 인지되어야 할 정보일 뿐만 아니라, 시왕 및 망자의 영혼을 시왕맛이, 귀양풀이 등 죽음의례가 펼쳐지는 제장에 청하기 위해 나열되어야 할 정보이기도 한 것이다.

3) <혜심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시주님이 시주님아 이 내 말씀 들어보셔.”라는 사설로 시작한다. ②혼 인도 하고 잘 살려고 했지만 병들어 죽게 된 사정을 풀어낸다. ③저승차사가 인간 세상에 와서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심판하는 과정을 풀어낸다[심방이 저승차사의 복색을 하고 적배지[赤牌旨]를 등에 지고 <혜심곡>을 구송한다. ④사람이 죽자 저승 장정에 붉은 낙점이 찍힌다. ⑤차사가 영혼을 데리러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⑥각처 본향神에게 들러 호적의 명부를 대조하며 영혼을 찾아다닌다. ⑦곳 하는 마을의 본향신에게 확인한 결과 수명을 다한 사람의 집을 찾게 된다. ⑧門神, 龍王神의神力이 세어 잡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 가만히 동정을 살핀다. ⑨조왕신이 조는 틈을 타서 영혼을 결박해서 저승으로 데려간다. ⑩영혼은 軍門마다 인정을 걸며 들어가 시왕 앞에서 죄목제상[罪目罪狀]을 확인하며 심판을 받는다. ⑪마침내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인다.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214-225면.

4) 하르바님이 말을 하되, “강님이야, 이게 이른으뜸(七十八) 공거름질이라. 이 질을 다 알아사 저승질을 가는 법이여. 요 질을 하나씩 세건 알아보라.” “예.” 일문전(一門前)이 이른으뜸 공거름질을 차례차례 세여잡데다. 이른으뜸 공거름질을 세여 올립니다. 천지혼합시(天地混合時) 들어간 질[路], 천지개벽시(天地開闢時) 들어간 질, 인왕도업시(人皇都邑時) 들어간 질, 천지천왕(天地天皇) 들어간 질 …(중략)… 발금체스 들어간 질, 모람체스 들어간 질, 적처스 들어간 질, 이승 강님(姜林)이 들어간 질, 죽고두고 계엄지 웬뿔[左角] 혼 착만이 질[路]이 났구나. “강님이야, 어주리비주리 눈부약 한달남 가시덤불 돌바쿠 능거등 질을 허우투어 가당 보민 저승 질토래비 질나장 속석(宿石)으로 드릴 노아 석자두티[三尺厚] 대жат업이[五尺廣] 질[路]을 다끄당 시장끼에 물령 해남석 앗앙 졸 암실거며 너의 가진 전뎛(戰帶)귀에 떡 정심(點心)을 앗아내영 질토래비 눈 앞의 노민 익은 음식(飮食)이라 배[腹]고픈 집에 사므시번(三番)을 그차 먹을겨여. 기영허엄시민 알 도례(道理) 이시리라.”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 자선』, 신구문화사, 1980, 252-255면.

2) <차사본풀이> 서사의 형성 맥락: 설화와 민속지식

<차사본풀이>가 구송되는 시왕맞이, 귀양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시왕맞이, 귀양풀이 제의에서 구송되는 <차사본풀이> 서사의 형성에 대해서는 설화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거론되어 왔으며,⁵⁾ 최근에는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이들 연구를 통해 <차사본풀이> 서사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밝혀진 설화는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편찬한 『해동이적보(海東異蹟補)』 소재(所載) <김치현감설화(金緻縣監說話)>이다.

<김치현감설화>가 <차사본풀이> 서사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에 두 작품의 주요 서사단락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주요 서사단락은 김치원님이 관장하는 마을에 의문의 급사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김치원님이 저승 염라대왕을 불러다가 해결하기까지의 내용이다.

| 주요 서사단락 | <김치현감설화> | <차사본풀이> |
|----------------|--|---|
| 급사사건의 발생 | 노파의 두 자식이 급사한다. | 과양생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를 하고 귀가하여 급사한다. |
| 원정소지 | 노파가 김치원님에게 염라대왕을 문책해 달라며 원정소지를 올린다. | ① 과양생 처는 석 달 열흘간 소지를 올린다. ② 실망한 과양생 처가 김치원님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
| 김치원님의 고민 | 김치원님이 노파를 위로하고 불가함을 설명하나 노파는 7주야를 울며 간청한다. | 김치원님은 의기소침하여 자결 또는 파직하려고 한다. |
| 해결방법 모색(원님) | 고장금(사령)에게 편지를 써 주고 염라대왕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 김치원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자 부인이 강임을 천거한다. 또는 김치원님이 파직하고 돌아가려 하자 부하사령이 강임을 천거한다. |
| 해결방법 모색(사령) | 고장금의 아내가 고장금에게 제물을 마련하고 정성들이는 법을 알려준다. | 강임의 큰부인이 강임에게 저승여행 방법을 알려준다(저승여행 준비, 가신들에게 정성들이기). |
| 사령의 저승여행 | 산신령의 음조, 염라대왕과의 만남이 차례로 서술된다. | 강임의 저승여행 과정과 염라왕과의 만남, 염라왕의 이승방문 약속 등이 펼쳐진다. |
| 사령의 하옥 | | 김치원님이 잘못된 밀고를 믿고 강임을 하옥시킨다. |
| 염라대왕과 김치원님의 대면 | | ① 김치는 염라대왕의 행차 소리를 듣고 놀라 기둥으로 변신한다. ② 염라대왕이 기둥을 베게 하자 김치원님이 염라대왕 앞에 현신한다. ③ 김치원님은 염라대왕의 질책을 받고 두려 |

5)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 : 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8집, 국문학연구회, 1-175면.

6) 강진옥(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187-225면; 강진옥(2010), “김치(金緻)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34면; 강진옥(2010),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327-361면.

| | | |
|----------------------|--|--|
| | | 워한다. ④ 강임이 김치원님을 변호하면서 염라대왕과 김치원님의 관계를 정립한다. |
| 염라대왕의 판결 | 염라대왕이 백성의 원정에 얽혀있는 이면적 진실을 말한다(주막집 주인이 유기장수를 죽이고 마판 아래 깊은 물속에 시신을 유기) | ① 염라대왕이 과양생 부부를 문초하고 못물을 퍼내 버무왕의 세 아들 시신을 건져낸다. ② 염라대왕은 버무왕의 살해된 세 아들이 과양생 부부에게 복수하려고 세 아들로 환생했던 것임을 밝힌다. ③ 염라대왕은 버무왕의 세 아들을 되살려 귀가시키고 과양생 부부는 처벌한다. |
| 김치원님과 염라대왕의 사령 차지 내기 | | ① 염라대왕이 강임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김치가 반대한다. ② 김치가 육체를 갖겠다고 하자 염라대왕은 영혼을 갖겠다고 한다. ③ 염라대왕이 강임의 영혼을 빼내 저승으로 데려간다. ④ 강임은 죽는다. |
| 사령 부인의 원망 | | 강임의 큰부인이 달려들어 김치원님을 손톱으로 긁어 죽인다. 또는 강임의 부인들이 달려들어 김치를 원망한다. |
| 사건 해결 이후 | ① 이후 원혼을 제사 지내는 풍습이 백년간 행해진다. ② 선정을 베푼 관리이자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김치원님을 부각시키는 서술자 논평이 첨부된다. | 저승차사로서의 강임의 좌정담이 부연된다. |

<김치원님설화>, <차사본풀이>에 등장하는 김치(金緻, 1577~1625)는 실존인물이다. 김치는 1609년 3월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하여 1610년 9월에 교체되었는데, 재임 중에 행정 구역을 개편·정리하고,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고 한다.⁷⁾ 제주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한편, 조선의 여러 관리들처럼 김치 역시 그와 관련된 명관(名官) 전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유형의 문헌설화에 그가 명관으로서 등장하고 있다.⁸⁾ <김치원님설화>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김치가 제주판관으로 재임하였던 제주에도 김치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에 정리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사본풀이>의 내용에 <김치원님설화>의 주요 서사단락이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사본풀이>에서는 김치보다는 강임에 초점이 있기에, 문헌설화인 <김치원님설화>에서와는 사뭇 다른 식으로 인물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서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 있는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치원님설화>는 사령 고장금보다는 김치가 얼마나 선정을 베푼 관리이며 신이한 능력이 있는 관리인가에 초점이 있다. 김치는 노파의 소지원정이 올라왔을 초기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데려오게

7) <http://jeju.grandculture.net>

8) 강진욱(2010), “김치(金緻)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34면.

할 적배지를 작성하여 고장금에게 준다든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염라대왕의 역할은 급사 사건의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게 하고, 실제 사건의 처리는 김치에게 맡기게 한 것도 원님으로서의 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차사본풀이>는 김치가 시종 나약하고, 염라대왕과의 대면을 두려워하며,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등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김치의 태도는 강임이 처음과는 달리 점차 당당하게 염라대왕에게 맞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 점에서 <차사본풀이>는 <김치원님설화>의 주요 서사단락만 수용했을 뿐, 그것들을 부연하여 서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은 차별적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차사본풀이>는 일반적 서사가 아니라, 죽음과 관련한 무속 의례서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임의 저승여행 준비 과정과 저승여행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염라대왕 또한 미제살인사건의 해결자로서 그 역할을 신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차사본풀이>는 인간차사 강임이 저승차사 강임으로 좌정하는 서사이자 죽음의 소관이 염라대왕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서사이기에, 이러한 차별성은 명관서사가 의례서사로 그 지향점이 달라진 데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화만이 <차사본풀이>의 서사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의 서사 형성 요소로써 민속지식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차사본풀이>에는 죽음의례와 관련한 다수의 민속지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속지식의 수용은 <차사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상상력을 다채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⁹⁾

| |
|--|
| ① 명전을 둘러 가는 법 |
| 흰 종이에 검은 글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덜이 쓰는 글이고, 저상은 요거 갖영,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뉘도 못 갑네다. 밥 먹봅센 헤여두언, 동안(東軒) 마당에 네렸구나. 원님안티 강 “원님아 원님아, 이걸 갖잉 저상을 가렌 허난 검은 머리 백발이 뉘도 못 갑네다. 흰 흥에 붉은 글을 네어줍서. 붉은 흥에 흰 글을 네어봅서.” 그때 네여준 것이 명전(銘旌)이우다. 빨간, 멩지(明紬)에~ 독세기로 글을 썩, 무물꺾를이나 밀가루 칠헤민, 사람 죽영 멩전을 둘러사 가는 법입네다에. ¹⁰⁾ |
| ② 건복법 ¹¹⁾ 과 고적법 ¹²⁾ 을 설연하는 법 |
| “열두 둘 녀몹시난 잇엇구나.”, 형제간은 옷 우잇 브름이여, 건복법(巾服法) 설련헌다. 일가방상 어룬 말은 “나 엇일 때 어평헌, 생각이 납데가?” “강임이 엇이난 큰일 때 생각이 나렌,” 허난, 일가에 사람 죽으면, 고적접도 설련헤여 간다. ¹³⁾ |
| ③ 성주풀이를 설연하는 법 |
| 강임인 동안 마당에, 목에 큰칼 헤연 앓앗구나. 목에 큰 칼 벗겨두고 “강임아 강임아, 이 집은 누가 지엇느냐?” “강태공(姜太公) 수목시(首木手)가 지엇수다.” 강태공 수목시를 데려단 “네가 이 집을 지엇느냐” “나가 이 집을 지엇습네다.”, “너 아니 세운 기둥 잇걸랑 대톱 소톱 갖어근, 썰렌.” 허난 “요 기둥은 나가 아니 세운 기둥이우다.”, 대톱을 갖어들언 썩난, 피아 벌경허난, 원님이 살아나옴데다-. 그 법으로 세 집은 짓이민 나무에 목신(木神)이 잇는 법이라. 성주풀이를 헤여사 그 집을 지텡헤영 사는 법입네다. ¹⁴⁾ |
| ④ 귀양법, 신앙법을 설연하는 법 |
| 일곱 장남은 “우리덜 사람 죽여났덴, 사람 축에 못 가민 어평험네까?” “너네덜랑 사람 죽은 디 귀양 풀이 헤영, 오곡밥을 주건들라근 그 집이 펜안(便安)허게 허곡, 귀양풀이도 안 헤고 오곡밥 아니주건, |

9) 최원오(2004), “한국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향점”, 『구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구비문학회, 415-450면. 표 이하의 본문 내용은 이 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 |
|---|
| <p>석 돌 백일 안에 급한 처서(差使) 들여보내라.” 시왕스젯상(十王使者床) 알로, 일곱은 귀양으로 오곡밥을 먹는 법 아홉 췌는 아홉 췌 “우리 어딜로 갑네까?” “너넬랑 아홉 신앙으로, 췌막으로 초질허라.” 일곱은 귀양법 아홉은 신앙법이 데었수다.¹⁵⁾</p> |
| <p>⑤ 별초하는 법, 제사법</p> <p>강임이 큰각시가 인간은 혼 번 오랑 가는 법이라. 셋돌 그믐날 저상문을 열려 정월 초하를날 뉘민 이싱 오랑 가곡 오월 초나흘날 저상문, 열리민 오월 단오(端午) 이 세상 오랑 가고 팔월(八月) 열나흘날 저상문을 열리민 추석날(秋夕-) 이싱 오랑 가곡 죽은~ 문은 디라그네 팔월 보름 당허건, 별초(伐草)허는 법을 마련한다. 죽은 날은 제섯법(祭祀法) 마련헤었구나.¹⁶⁾</p> |
| <p>④ 명정법, 저승입성 호상을 차려놓는 법</p> <p>강님의 큰부인 우렛 7찌 동안마당 원님 앞의 돌려들어, “원님아 혼번 실순(失手) 병가(兵家)의 상순(常事)디 우리 나라토 흐를앗아 삼식번(三番) 죽을 일을 헤여 지내는디 강님이 저승으로 염내왕 췌히레 가는디 저승본짱이 어찌 이리 뉘옵네까? 생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 종이에 감[黑]은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뉘옵네까?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줘서.” 원님이 “올타 나가 실수(失手) 뉘었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 췌 내여 주난, 그때 내은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람 죽어 멩전법(銘旌法) 서련허었수다. 강님의 큰부인 집으로 돌아오난, 강님이가 말을 흐뉘, “이 입성[衣服]은 어느제 출려 놓았느냐?” “불써 영 흘 줄 알고 지어 뉘수다.” 그때 내여 논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인간 사름 죽기 전(前)의 살아신 때 저승입성 호상을 출려놓는 법입네다.¹⁷⁾</p> |
| <p>⑦ 부모 장례 시 옷 입는 법</p> <p>“아바님아, 나 엇이난 어떻 생각나옵네까?” “설운 아기 엇어지난 뉘디뉘디 생각나라.” “설운 아바님 죽으민 육항방장대 으섯막작[六節] 왕대방장대 설립흐곡 왕대 막작마다 뉘디뉘디 아바님 생각흐명, 아바님은 즈식상엿 뉘음 알을 풀어시니 알 푼 시무옷 둘러입영 연삼년(年三年) 중의 행착 출령 아바님 공(功) 가파 드리리다.”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떻 생각납네까?” “설운 아기 엇어지난 먹먹허여지어라. 저 올레예 걸당도 즈직즈직 생각나.” “어머님은 죽으민 동(東)데레 휘여진 머구낭 가지마다 즈직즈직 생각허여, 어머님 즈식상엿 뉘음 알을 감추와시니 알 감친 시무옷 입영 어머님 공 가파드리쿠다.”¹⁸⁾</p> |

위에 제시한 ①번부터 ⑦번까지의 여러 민속지식은 <차사본풀이>가 죽음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모두 죽음의례와 관련된 민속법(民俗法)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차사본풀이>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민속지식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서사 전개에는 하등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민속지식은 독립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속지식이 독립성을 띠다고 해서, <차사본풀이>와는 별개의 민속지식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차사본풀이> 속의 민속지식은 이미 견고한 서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서사 속에 민속지식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민속지식은 기원의 근거를 갖게 된다. 명

10) 허남춘 외 지음(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224면.
11) 상을 당하면 형제의 두건 쓰고 상복 입는 법.
12) 장사 때 친족끼리 떡을 만들어다 부조하는 법.
13) 허남춘 외 지음(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235면.
14) 허남춘 외 지음(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237면.
15) 허남춘 외 지음(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239면.
16) 허남춘 외 지음(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242면.
17)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자선』, 신구문화사, 247면.
18)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자선』, 신구문화사, 264-265면.

정법을 마련하게 된 기원이 강임에게 내준 김치원님의 소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수의를 마련하게 된 기원이 저승에 가게 된 강임을 위해 강임의 큰부인이 옷을 마련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민속지식이 그 자체로써는 독립성을 띠지만, <차사본풀이> 속에서 그것은 신성한 기원을 갖게 됨으로써 민속지식이 민속문화의 층위에서 얘기되는 것과는 다른 상상력의 층위를 갖게 된다. 이때 그 상상력의 층위란 말할 것도 없이 신화적 상상력이다.

그런데 신화적 상상력의 층위라고만 단정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지적이 될 듯싶다. <차사본풀이>는 신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무속의례에서 구송되는 신화이고, 무속의례란 그렇게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의 의례가 아니다. 지역마다 심방마다 섬세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무속의례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특별히 ⑦번과 다음의 인용문을 함께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할미할아버야,바른대로일너주소
 전라도왕대밭은아바승하하옵시면
 양껏잘나집흐시고,삼년애곡하옵나니
 전라도왕대남기아바로성이시며
 뒷동산모구나무는어마로성이다.
 전라도왕대밭은멀고멀어
 삼시문안못들켓다
 뒷동산모구나무에,삼시문안극진하시드라.¹⁹⁾

위의 인용문은 육지의 대표적 무속신화인 <바리공주>에서 발췌한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로 상장(喪杖)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로 상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민속지식의 <차사본풀이>와 <바리공주>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보자. ⑦은 강임이 부모와 문답하는 중에 제시된 것이고, 위의 인용문은 비리공덕 할미, 할아버지와 바리공주가 문답하는 중에 제시된 것임에 주목해 볼 때, 우리는 민속지식의 기원이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저러해서 어떤 법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성을 주장하지 않고, 동일한 민속지식이 다른 기원을 갖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 무속신화를 구송하는 심방의 자의에 따라 민속지식의 기원이 달리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심방의 신화적 상상력에 의거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그냥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속지식 그 자체는 변용하지 않고, 그것의 기원만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슨 신화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민간에 전승되는 민속문화의 하나로써 민속지식은 무속신화에 수용된 민속적 사실과 동일한 것이되 동일한 것일 수 없다. 무속신화에 수용된 민속적 사실은 이미 무속신화라는 신화적 문맥 속에서 ‘기원’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동일한 민속지식도 다른 기원에 연결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만 보면 동일한 민속지식이지만, 무속신화의 문맥 속에서 보면 ‘기원’과 연결됨으로써 무속신화의 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이를 칼리그램(Calligramme)적 상상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칼리그램이란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방식으로 시행들이 구성된 시를 말하는데, 그림이면서 시이고 시이면서 그림이라는 점에서 둘은 독자성을 갖는 한편, 서로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민속문화의 하나로서의 민속지식이 무속신화 속에서 보이는 성격과 무척 닮아 있다.

19)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심우성 옮김(1991), 『朝鮮巫俗의 研究』, 동문선, 33면.

그렇다면 칼리그람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또는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자면 우리는 무속신화가 공연되는 환경인 의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례는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을 향한 신성한 의례의 반복, 거기에서 제시되는 무속신화의 구송과 반복. 민속문화의 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무속신화의 문맥 속에서 민속지식으로 제시되고, 그저 민속지식인가 생각했는데, 신성한 서사의 전개, 그것도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중에 ‘기원’의 형식으로 연결됨으로써, 의례를 통해 무속신화를 듣는 청중은 민속문화의 요소들을 신성한 것으로써 반복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간에 청중은 이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민속문화의 요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청중들에게 마치 민속법과 같은 것으로써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리그람적 상상력과 그것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즉 이 칼리그람적 상상력은 무속신화의 반복적 구송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민속문화를 그저 반복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속문화의 요소들을 민속지식과 신화적 상상의 차원으로 해체하고, 또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민속지식과 신화적 상상력의 관계를 은연중에 성찰하게 된다. 아, 이런 거구나, 또는 이런 거였어, 등의 순간적 성찰 말이다.

따라서 <차사본풀이>의 서사에 수용되어 있는 민속지식은 칼리그람적 상상력을 유발한다는 점,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면서 저것이 아닌, 상호 종속성과 독립성을 갖는 경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 경계성은 우리로 하여금 민속문화의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 그러한 순간적 성찰은 민속문화를 죽은 것이 아닌 살아 있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 등에서 심대한 신화적 상상력의 총위와 의미를 갖는다. <차사본풀이>와 같은 무속신화는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데 그 궁극적 서사의 지향점이 있지만, 그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서사 속에서 다수의 민속지식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규제되는 동시에 성찰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이다. 특히 존재론적 인간으로써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죽음, 그것이 가무로써 연행되는 의례공간에서 신화적 기원에 근거를 둔 ‘민속지식’의 구송은 우리의 일상성과 존재성을 ‘저 아득한 지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사본풀이>가 말하는 죽음의 윤리

우리는 죽으면 누구를 처음 만나게 될까. 그것은 저승차사일 것이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통인아, 어서 저기를 보아라. 연추문에 붙인 적패지가 어떤 적패지냐?”

이원사자가 말을 하되,

“이승 강림이가 저승 염라왕을 잡으러 온 적패지입니다.”

“어떤 놈이 나를 잡겠느냐?”

강림의 한 줌은 하였던 육신은 봉황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거스르고 청동 같은 팔뚝을 걸어 동곳 같은 팔주먹을 내놓고,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한번을 펄쩍 뛰어 메어치니 삼만관속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 번을 메어치니 육방하인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가마채를 잡아 흔들면서 가마 문을 열어 보니 염라왕도 두 주먹을 쥐고 앉아 발발 떨고 있습니다. 염라왕 손에 눈깜짝하는 사이에 손에는 오랏줄, 발에는 족쇄, 용도머리, 행차 밧줄로 결박하여, 한번을, 잡아 밟으니 염라왕도,

“강림이야, 강림이야. 밧줄의 한 고만 늦추어 달라. 인정 사정 많이 걸어주마.”

염라대왕의 인정 사정을 많이 받아 한 고를 늦추니, 그때에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어 가면 이 차사가 앞에 서고 이 밧줄로 결박하여 보내는 법입니다.²⁰⁾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게 될 때 강임차사가 망자를 데려간다는 것이다. 그것도 암전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로 결박해서 데려간다는 것이다. ‘죽는 게 죄인가, 밧줄로 결박까지 하게.’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리 민속에서 질병이나 죽음은 별과 곤잘 결부되어 설명되곤 한다. 예컨대 누군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면, 그것은 천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차사본풀이>에서 강임이 망자를 밧줄로 결박해 가는 것은 죽음과 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근원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 저승차사 강임이 한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어떨까. 죽음이라는 근원적 죄가 좀 더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²¹⁾

강임은 원래 김치 원님에 소속된 일개 사령이었다. 그리고 열여덟 각시를 거느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자에 파묻혀 사는 호색한(好色漢)이었다. 일정하게 하는 일도 있고, 각시도 열여덟이나 되니 사는 맛이 솔솔 났을 것이다. 이렇게 호강을 하며 지내던 그에게 시련이 닥쳤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상관인 김치 원님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김치 원님은 과양생의 세 아들이 과거 급제 뒤 급사한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소지를 처리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열여덟 각시와 일상의 재미를 만끽하면서 지내던 강임에게, 김치 원님의 부인이 남편에게 제안한 계약은 재앙과도 같았을 것이다. 칠일 동안 아침 일찍 사령들을 입참(入參)시키되 늦은 자가 있으면 그 자로 하여금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하자는 것. 이는 똑똑하고 영리하기로 이름이 난 강임에게 미제 사건을 해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김치 원님 부인의 절묘한 계책이었다. 강임이 처음 며칠은 아침 일찍 입참하였지만, 칠일째 되는 날 그만 열여덟 번째 각시에게 빠져 늦잠을 자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치 원님은 강임을 형틀에 묶어 놓고 당장 죽이겠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올 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테냐고. 강임은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겠노라고 대답하고 만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벌어진 상황이지만, 나중에 저승차사가 되는 강임도 당장 죽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이제 강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난제를 해결해야 될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비록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말을 듣는 강임이지만, 그도 또한 김치 원님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라고 해서 별 뽀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강임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엔 이런 생각까지 해본다. 큰부인(첫 번째 각시)을 박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쫓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닥치면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는 법이다. 문제 해결의 힘과 지혜는 결국은 내면 가장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에 묻혀 살 때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던 것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임이 시집오고 장가갈 때 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않은 큰부인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시작된다. 비록 강임은 그 길이 염라대왕을 잡기 위해 나서야 할 자신의, 저승 여행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20)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51면.

21)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글 “강임: 이승차사인가, 저승차사인가”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서대석 엮음(2008),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2, 휴머니스트, 206-221면.

“이여 방애 이여 방애, 매정하고 매정한 설운 낭군님아, 오늘은 저 올래에 먼 문도 열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왔습니까?”²²⁾

큰부인이 강임을 보자마자 쏘아붙인, 원한에 사무쳐 내뱉은 구박의 말이다. 그러나 강임은 아무 대답 없이 사랑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어쓰고서는 누워버린다. 큰부인을 박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것이라 생각했으면서도 한 마디 말도 없다. 가장의 권위나 내세우는 사내라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화를 낼 법도 하련마는, 강임은 그런 화를 낼 힘마저도 없다는 듯 곧장 방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강임은 지금 자신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에 지칠 대로 지친, 말 그대로 가장 나약한 인간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똑똑하다는 평과는 달리 심성은 지극히 나약한 인간, 큰부인이 자신이 쏘아붙인 말 때문에 혹 그러는가 싶어 오해할 정도의 인간, 그게 바로 인간 차사 강임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큰부인이 진짓상을 들이기 위해 잠긴 문을 억지로 뜯고 들어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이 한강수가 되도록 울고 있는 강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떠맡아놓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걸로 끙끙대고 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부모에게 야단맞은 아이의 모습과도 같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큰부인이 남편 강임을 달래고, 강임은 이제야 그걸 물어보려는 듯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그만한 소지 처리를 못해서 걱정을 합니까? 그 소지 처리는 내 할테니 염려 말고 진짓상을 받으십시오.”

강림이 서른 여덟 이빨디로 허우덕씩 웃으면서 진짓상을 받아가니……²³⁾

큰부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강임은 서른여덟 개 이빨이 다 보이도록 활짝 웃는다. 아직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한 것인데도 강임은 이미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근심 걱정이 얼마가 깊었으면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강임은 큰부인을 찾아오으로써 드디어 이승 차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승 차사이면서 앞으로 저승 차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의 구체적 캐릭터의 이미지가 거의 마련된다. 이승 차사의 이미지 중 어떤 것은 저승 차사의 이미지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를 끝마친 강림이를 좋은 껌문 열어 놓고 저승 의복을 내어놓아,
“이 의복을 입고 저승으로 어서 가십시오.”

강림이 저승 복장으로 차리니 저승차림이 완전합디다. 남방사주 봉에바자, 백방사주 저고리, 자주명주 통행전, 백릉버선, 섭송메미토리 백지로 들메를 메고 한산모시 두루마기에 남수화주 적괘자, 운문 대단 안을 받치고, 들소털 흑두저립에 허울거리는 상모하며, 밀화패영 늘어뜨리고, 굴망굴깃의 허울거리는 깃, 관장패를 등에 지고, 앞에는 날랄 용자 뒤에는 임금 왕자 홍사줄은 옆에 차고, 적패지는 웃고름에 채워 문앞에 내세우니 저승 차림이 완전합디다.²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승 복장, 즉 망자의 복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후에 저

22)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1면.

23)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1면.

24)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3, 135면.

승 차사가 되어 이승을 드나들 때의 복장은, 이승 세계의 관리들이 입는 차림이다. <차사본풀이>에는 저승 차사의 복장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무속의 무신도(巫神圖)나 불교의 감로도(甘露圖)에 전해지는 저승사자들의 복장은 울긋불긋한 원색 계통의 옷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승의 일반 관리들이 입는 복장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인간 차사로 저승을 갈 때와 저승 차사로 이승을 올 때의 강임의 복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홍사줄’을 옆에 차고 다닌 것은 이승 차사일 때나 저승 차사일 때나 똑같다(<장자풀이>에서는 저승 차사 강임이 쇠망치를 들고 나온다).

복장이 바뀌면 그 복장을 한 인간의 의식도 어느 정도 통제되기 마련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무례하게 행동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강임도 저승 복장을 하고서 저승을 향해 갈 때 예의 나약함, 즉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보이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남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영민함을 보인다. 저승으로 가는 중에 길을 몰라 슬피 울다가 청태산 마구할망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내대장부가 행차하는 길에 여자가 지나다니. 여자는 꿈에만 보여도 사물(邪物)인데, 어찌 나의 앞을 지나가는고?’라 생각하는가 하면, 그 마구할망을 따라 잡으려다 못 잡자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마구할망에게 가 큰절을 하는 데서 그의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강임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가도 갈 수 없는 곳이 저승길임을 알게 된다. 큰부인 집의 조왕할망인 청태산 마구할망, 마루방 앞쪽의 문신(門神)인 일문전, 저승길을 고치는 길나장 등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저승이었던 것이다. 강임은 저승에 점차 다다르면서 큰부인의 정성 때문에 조왕할망과 일문전이 자신을 돕는다는 것, 자신이 보여준 정성에 대한 대가로 길나장이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체험은 강임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고, 그가 저승 차사가 된 후에도 인간의 ‘정성’은 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장자풀이>에서 강임 차사는 두 명의 저승사자와 사마장자를 잡아가기 위해 이승에 왔다가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보여준 정성에 그만 사마장자가 타고 다니던 말을 대신 잡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승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승 여행을 하던 이승의 차사 강임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인간의 ‘정성’을 이해하는, 지극히 인간적 성정을 지닌 저승 차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가 저승 차사로 발탁된 것은 아니다. 아귀(餓鬼)들이 들끓는 행기못을 통해 저승 초군문에 이르러 염라대왕을 향하여 붉은 밧줄을 힘차게 던지며 했던, 염라대왕이 이승에 와 김치 원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강임이 중재하며 했던 다음과 같은 말들이 염라대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지, 만약 강임이 인간의 ‘정성’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려 했다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찢찢매는 모습을 보였다면 결코 그는 저승 차사로 발탁되지 못했을 것이다.

“염라왕님아, 어찌 그리 욕을 하십니까? 저승 왕도 왕이고 이승 왕도 왕인데, 왕과 왕끼리 못 칭할 바 있습니까?”

염라왕이 그 말을 듣고,

“강림이가 똑똑하고 역력하다. 이승 왕님아, 어떤 일로 나를 칭하였습니까?”²⁵⁾

염라대왕은 강임의 위와 같은 발언에서 자신의 상관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 그 대상이

25)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63면.

누가 되었던 간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인 용맹, 그리고 똑똑함과 영리함을 읽었다. 이어 ‘저와 같은 부하가 내 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강임이 비록 이승 차사이긴 하지만 저승 차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김치 원님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김치 원님아, 김치 원님아. 강림이를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저승에 가서 일을 시키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 조각씩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육체를 갖겠습니까?. 혼정을 갖겠습니까?”

어리석은 김치 원님은

“육신을 갖겠습니다.”

염라왕은 강림의 삼촌 빼내 갖고 저승으로 돌아서니…….26)

이렇게 해서 강임은 저승 차사가 된다. 대개의 우리 무속신화가 그렇듯 신화의 주인공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 때문에 그와 연관된 신직(神職)을 부여받는다. 바리공주가 저승에 가서 약수(藥水)를 가져와 죽은 부모를 살린 뒤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신이 되듯, 강임도 이승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염라대왕을 이승에 데려와 결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신직인 저승 차사가 된 셈이다. 그렇다. 용맹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강임에게는 똑똑하고 영리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었다. 김치 원님한테서 부여받은 난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 해서 부모가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아이처럼 징징거렸지만, 저승 여행을 통해 그는 그가 내재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임의 이러한 능력은 그가 저승 차사가 된 후, 그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강림이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삭이를 잡자고 하여 차사를 보내는데, 아이 차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도 잡아오지를 못하니 어떤 일이고? 네가 동방삭이 있는 데 가서 동방삭이를 잡아오면 한 달을 돌려주마.”

“어서 그건 그리하십시오.”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 서서 검은 숲을 시내 방천에서 발강발강 씻고 있더니, 동방삭이가 넘어가다가,

“넌 어떤 일로 숲을 앉아 씻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숲을 백일만 씻고 있으면 하얀 숲이 되어 백 가지 약이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이 놈아, 저 놈아. 내가 동방삭이 3천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바가 없노라.”

강림이가 방긋 웃으면서 옆에 있던 홍사줄을 내놓고 동방삭이 몸을 결박하니,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없더라도 동방삭이 3천년을 살다 보니 강림의 손에 잡히는구나. 어서 저승엘 가자.”

염라왕에게 바쳤더니 염라왕이,

“강림이가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차사로 들어서라.”

26)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65면.

그 후로 강림은 사람을 잡아가던 인간차사가 되었습니다.²⁷⁾

동방삭을 잡는 난제에서 보이는 강림의 모습은 김치 원님한테서 난제를 받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것과는 판판이다. 조금의 난색도 나타내지 않은 채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역시 저승 차사 강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하다. 이처럼 강림은 한번은 이승 차사로서 이승의 난제를, 또 한 번은 저승 차사로서 저승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에서 최고의 해결사가 된다. 그것은 그가 똑똑하고 영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 되기까지 그는 큰부인, 마구할망, 일문전, 길나장 등과의 관계 속에서 '정성'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경험해야 했다. 이후에야 그는 저승 차사로 발탁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강림은 우리에게 더욱 매력적인, 저승 여행을 하는 이승 차사도, 이승 여행을 하는 저승 차사도 아닌, 인간 차사 강림이란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저승 차사라면 섬뜩한 느낌이 들지만 인간 차사라면 좀 덜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인간적 '정성'을 이해하는 저승 차사 강림, 아니 인간 차사 강림과 함께라면 우리의 저승길이 그리 두렵지만도 않을 듯하다.

죽음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았다고 한다. 때로는 죽는 방법을 몰랐다고도 한다. 그러다보니 이 세상은 산 사람들로 바글바글,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았다. 누군가 죽음으로 가는 문을 열든지 죽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차사본풀이>에서도 강림은 저승 차사가 되어 첫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게 인간의 수명을 기록한 적패지를 이승 세계에 붙이고 오는 것이었다. 그것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까마귀가 적패지를 뱀의 아가리에 떨어트리는 바람에 뱀은 죽는 법이 없이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환생하게 되고, 인간은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이 태어난 순서와 무관하게 죽게 된 것은 순전히 강림과 까마귀 때문이라 하겠는데, 그게 신화적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니 강림과 까마귀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에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정해진 수명이 끝난 후에도 이승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가 강림 차사에 의해 저승으로 압송된 강태공의 예에서 보듯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에 관한 한 우리는 저승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승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 말했듯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는다면 인간 세계는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명이 다 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압송해가는 강림 차사는 저승과 이승을 안정되게 하는 자이다. 말하자면 강림 차사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캐릭터인 셈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강림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승법-물론 잘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없기는 하지만-만을 잘 지키고 살면 그뿐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성문법(成文法)만 법이 아니다. 강림이 염라대왕 앞에서 당당히 '저승왕도 왕이고 이승왕도 왕이며, 저승 관장도 관장 이승 관장도 관장이니 저승 관장은 이승 관장의 말도 들어야 한다.'고 외친 것처럼 신화적으로 보자면 이승이나 저승은 이미 하나로 묶여진 세계이다. 강림이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저승에 가는 거나 미제 압송 사건을 해결하러 이승에 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승과 저승은 전혀 별개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림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저승법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저승법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가. 정해진 수명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27)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69면, 171면.

그래서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강임 차사를 따라 순순히 저승에 가는 것이 저승법을 지키는 것인가.

저승법은 저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정해진 수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차사본풀이>에서 버무왕의 세 아들은 15세가 정명이었으나 그걸 벗어나기 위해 불도(佛道)를 닦고서 귀가하다가 이들의 재물을 탐낸 과양생의 아내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강임에게 잡혀 온 염라대왕이 시비를 가려 결국 버무왕의 세 아들은 환생하고, 과양생과 그의 아내는 죽임을 당한다. 인간의 정명이란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순간 정해지는 것, 그러나 정성을 보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강태공처럼 저승사자들을 속이며 정명 이후에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산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저승사자들을 속이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삶,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망자의 삶이 될 뿐이다. 결국 우리의 수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탐욕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다면, 지나친 탐욕의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정명은 수정될 수 있다는 삶의 철학, 그것을 강임이라는 캐릭터는 말해주고 있다. 이는 강임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적 특성을 인간적 '정성'을 체험하여 이해한, 그리고 똑똑하고 영리한 '인간 차사'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인간적 정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죄로써 규정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강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윤리이자 신화철학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 강진옥, 2010, “김치(金緻)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강진옥, 2010,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 강진옥, 2012, “차사본풀이 연구-강임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5권, 한국고전연구학회.
- 강진옥, 2014, “저승여행담을 통해 본 제주도 무가 <헤심곡>과 <차사본풀이>의 관계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강진옥, 2015, “신무염불에 나타난 강임차사의 인물형상과 그 형성배경”,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학회.
- 김형근·김현선, 2008,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태효·김윤희, 2010,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서대석(, 1968, “서사무가연구: 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8집, 국문학연구회.
- 서대석 엮음, 2008,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2, 휴머니스트.
- 유형동, 2015, “<짐가제굿> 무가의 서사 지향과 기능 - <차사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아고대학』 제3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 최원오, 1997,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 최원오, 2004, “한국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향점”, 『구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허남춘 외 지음, 2015, 『서순실심방본풀이』, 경인문화사.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자선』, 신구문화사.
- 현용준·현승환 역주, 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심우성 옮김, 1991, 『朝鮮巫俗의 研究』, 동문선.